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4) 세계로 뻗어나가는 5·18민주화운동

오월정신 국제 연대·공유...아시아 민주화운동 교과서로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불혹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이제 광주는 물론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가까운 아시아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롤 모델이자 민주화의 교과서로 통한다.

대만의 경우 국가 차원의 5·18 행사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비록 '코로나19' 여파 탓에 취소됐지만 홍콩 민주화시위의 핵심단체가 5·18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오월정신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이후 '오월정신'을 기반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 현대사 등이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와 세력들에게 롤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국가차원의 5·18 행사 개최를 요청한 이유는 대만 정부와 국회가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 40주년을 기념하고 과거사 정리 실태를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의 과거사 청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5·18민주화운동보다 앞선 1979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당일 '메이리다오' 잡지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가오슝(高雄)시에서 계엄령과 정치 탄압에 저항하며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 중 경찰과 시민이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민주 인사 대부분이 사법처리됐다.

대만 정부위원회인 '전환기 정의추진위원회' 소속 장관·국회의원·위원 등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전국의 5·18' 특별전을 관람 후, 대만 전사의 필요성을 인식해 초청 전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 국회 관계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항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는데 관련 유적이 보존되고 있으며, 기념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을 받아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메이리다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군사 재판에 대한 체계적·전면적인 진상 규명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되새기는 한편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과 진상 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핵심 단체인 홍콩 민간인권 전선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코로나19 여파에 취소가 결정됐지만, 홍콩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롤모델로 삼고자 했던 시도가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에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됐다"며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대만 5·18 특별전 초청 전시 추진
홍콩 5·18 기념식 방문 제안 등
세계 각국 민주화운동 롤 모델로

홍콩 집회서 울려 퍼진 '임 행진곡'
세계 민주주의 상징 대표곡으로

매년 열리는 '광주 아시아 포럼'
국제 인권네트워크 허브로 발전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와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할 것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5·18이 홍콩에 건넨 메시지는 40년 전 해외의 인권단체가 광주에 보냈던 연대의 정신을 반추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5·18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곡으로 거듭나고 있다.

1981년 가을, 고(故)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어머니들의 집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고 홍콩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한 어머니가 기타를 들고 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 모두가 따라 부른 것이다.

홍콩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알려진 이유는 1982년 가을, 서울에 온 홍콩의 대학생이 YMCA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다. 이후 종교계 노동계의 국제 교류가 이어지면서 대만과 캄보디아, 태국에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중 매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인권 네트워크의 허브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광주가 매년 수여하는 광주인권상은 아시아 인권운동과 정치발전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5·18기념재단은 5월 정신을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과 공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다.

이를 위해 국제 교류 연대와 교육, 학술연구, 홍보출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 오월정신을 세계에 퍼트리고 나누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했거나 일부만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계속 속도가 붙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12월12일 대만에서 열린 '5·18특별전'을 찾은 대만시민들이 1980년 당시 광주의 상황이 적힌 글과 사진을 보고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1980년 5월15일 광주시민들이 '민주의 벽'에 붙은 대자보를 보고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40주년 전야제는 어디로 갔을까?

홍인화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국제학박사

어언 40년이다. 그 세월 속에 광주 5월 정신은 더욱 빛났다. 그리고 광주는 40주년 5·18 전야제를 야심차게 준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전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40주년 전야제가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를 향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취소된 전야제의 주제는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이었다.

광주 5월 4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를 느끼고, 오월을 체험하며 40년 역사의 문을 열고자 했다. 오월엄마가 사울 엄마를 만나고, 오월을 밝힌

1987년 그날의 민족 민주 열사를 만나다로 조명한 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만든다. 광주의 힘 오월의 그날, 시민과 함께 부르는 오월의 노래, 결사항전의 노래,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오늘의 투쟁들, 전국에서 집결한 민중가요 노래패, 네트워크로 연결한 민중가요, 홍콩에서 성난 군중들의 노래 소리, 칠레의 민중가요 등을 준비해왔다.

그 모든 것들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취소된 전야제에 묻어졌다. 5·18전야제는 5·18의 전초 행사가 아니라 5·18로 지정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여는 기념식에 다름 아니다.

희망과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야 할 전야제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그동안 전야제에서 광주정신을 아우르는 근현대사와 5·18의 진실을 밝

히고 역사 왜곡을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대동 한 마당'으로 세월호 유가족들도 추모했다.

5·18전야제는 198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다. 34주년 전야제(2014년)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민주대성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전야제가 취소된 것은 한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5·18 광장과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다.

마스크를 쓴 채 매년 그랬던 것처럼 거리로 나왔다. 그날을 기억하려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주의 5월 정신은 이미 제3세계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권에도 상당히 알려졌다. 홍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5·18상징인 '임을 위



한 행진곡'이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적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5·18이 언급된 것을 듣고 이를 공부하고 직접 광주를 찾는 해외 팬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5·18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진상규명이며, 다른 하나는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다. 이를 제대로 극복해야 4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인 5·18을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보여준 저력은 매우 컸다. 전 세계가 감탄했고 세계가 따라 배우고 있다. 'K-방역'도 따지고 보면 광주 오월의 대동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개방성과 민주성에 힘입은 거다. 민

주주의에 단련된 국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코로나 방역에서 우수성을 발휘한 거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질서정연함에 세계는 놀랐다.

5·18정신에서 비롯된 민주적 질서에 기인한 바가 아닐까.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5·18은 3·1운동에서 시작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온 정신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개막식에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한다. 광주 오월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40년이 흘렀다. 그만큼 광주 정신은 영글었다. 이제 내일을 향해 뻗어가 진실로 민주, 인권, 평화로 열매 맺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5월의 참된 정신을 안으로 정비하고 밖으로 더욱 펼쳐내야 한다.